

초등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본격... 기초·기본학력 신장 우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본격화했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 원하는 학교에서만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내 모든학교에서 실시할 것을 적극 권설했다. 이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개별학생의 성취 특성을 진단하는 평가로, 교과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부분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인 초등 3학

년과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인 중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력진단 후에는 기초학력보장 3단계 안전망,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팀,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성취수준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학력향상 도전학교는 △학습동기 부여 △학습역량 함양 △교과학습 지원 △학습관리 지원 등 5개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학생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 현장 적합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된다.

앞서 3월 보급한 학생 학습지원 앱 '올라'를 통해 소속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아 학습멘토, 학습코칭과 연계한 1:1멘토링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력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기초학력은 물론 기본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재학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신청

전북자치도교육청, 18-21일

온라인 신청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8일부터 초·중·고 및 특수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에듀케이 중 하나인 입학지원금은 1학년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자 추진됐다.

신입생들이 가방, 신발, 의류, 학용품(문구)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고등학생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 3월 11일 기준으로 재학 중인 학생과 중도에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들에게도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8~21일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 교육청 누리집 내 전북에듀케이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www.jbe.go.kr/edupay)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 동시 접수 폭증 등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8일에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지역 △19일에는 전주 지역 △20~21일에는 모든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분산했다.

지원금은 학교에서 학부모(보호자) 신청 계좌로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면서 "입학지원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커플링사업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됐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커플링사업단 '우수'

전북대, 전북자치도 주관 올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 최우수 등급

전북대학교 문화예술-관광 융·복합 커플링사업단(단장 이화동·이하 커플링사업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인 S 등급을 받은 커플링사업단은 올해도 최우수등급을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커플링사업단에 따르면 산·학·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사업, 체계적인 취업지원 사업, 산학협력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 4가지 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자체 개발한 차별화 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사 2급 국가자격증,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자

격증 과정(전통놀이전문교육사, 예술교육사, 방송예술사)을 운영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90% 이상의 평균 취업률을 보였고, 3월 현재 60%의 학생이 관련 분야에 조기 취업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커플링사업단에 예술대 학생의 지원이 늘고 있으며, 도내 문화예술관광 관련 기업의 경우 참여기업 협약과 우선 채용 약정 등 지속적인 채용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

이화동 단장은 "예술대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선호하는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인성이 함양된 경쟁력 있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11일 교육부의 2024년 글로벌대학30사업 공모를 앞두고 군장대학교와 대학 간 연합모델 구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석대-군장대, 글로벌30 연합모델 구상한다

올해 교육부 공모 앞두고 협약 체결... 특화 분야 사업단·연구소 공동 운영 등 협력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1일 교육부의 2024년 글로벌대학30사업 공모를 앞두고 군장대학교(총장 이계철)와 대학 간 연합모델 구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군장대학교 이승우 공동학원 이사장과 이계철 총장, 권은하 기획관리처장, 전근환 교학처장, 하대겸 총학생회장, 우석대학교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 이홍기 글로벌추진본부장, 하사달 총학생회장 등 양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와 정광모 교육협력추진단장이, 신원식 군산부시장과 조영식 완주부군수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약은 양 대학이 급변하는 교

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연합대학으로서 과감한 공동 혁신을 통해 세계 속의 지역대학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포괄적 연합 수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대학30은 교육부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비수도권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대학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양 대학은 △공동의 단일의 사정결 거버넌스 구축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사업 공동 추진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교육의 질 관리 위한 공동방안 마련 △학생·정보·교육시설·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와 지원협력 △교육 및 연구 장비와 시설의 공동 활용 △특화 분야 사업단·연구소의 공동 운영 등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의 상상 발전은 물론 특성화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특성과 분야 대학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철 군장대학교 총장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과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우석대학교와 함께 전문직업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싱가포르 대학생 대상 단기 연수 프로그램 진행

15일까지 한국 방문 테마석

폴리테크닉대학 학생 등 28명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11~15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싱가포르 테마석 폴리테크닉대학 학생 28명과 인솔 교수 2명을 포함 28명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 프로그램은 호텔경영학과 임현정 교수와 토드 모리스 교수가 진행, 오전에는 '지속 가능한 호텔 관광산업 현황'과 '전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및 문화의 다양성' 등을 주제로 수업과 워크숍을 갖는다.

이어 오후에는 전북지역의 여러 문화 관광지 현장을 둘러본 뒤 외국인 관광객 관점에서 지역관광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에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 1 대로 팀을 구성하는 Buddy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친밀한 교류를 나누고, 각 팀은 자신들이 관찰한 제안을 모아 그룹별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싱가포르 대학생 모두에게 단기 연수 이수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11~15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싱가포르 테마석 폴리테크닉대학 학생 28명과 인솔 교수 2명을 포함 28명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사진=전주대학교 제공).

호텔경영학과 임현정 교수는 "2022년 처음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싱가포르 학생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참여했던 학생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올해는 26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됐다"며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싱가포르 학생들이 만큼 전북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풍부한 역사와 전통 및 문화자원을 싱가포르 학생들이 최대한 경험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돌

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월 21일 테마석 폴리테크닉대학 피터 램 총장이 직접 전주대학교를 방문해 박진배 총장을 만나 두 대학의 국제 교류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캠퍼스 텃밭 분양

내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역민들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캠퍼스 텃밭을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분양하는 캠퍼스 텃밭은 농생대 부속농장 실습장 부지 1.456㎡ 면적에서 총 114개 구획과 텃밭상자 5개 구획이다. 이 중 98개 구획은 지역민에게 추첨을 통해 분양되고, 나머지 2개 구획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년도 우수재배자 등에게 특별 분양된다.

한 구획 당 텃밭 면적은 약 13㎡이고, 텃밭상자는 2개가 1개 구획이다. 신청은 오는 13~19일 전북대 홈페이지(www.jnu.ac.kr) 교내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griculture123@jnu.ac.kr)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은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25일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주병길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캠퍼스 텃밭은 대학의 자원을 공유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살고 싶은 지역-대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나눔과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형 과학중점학교 38곳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올 교육과정 중점형 4곳·활동 중점형 34곳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 중점형 4개교, 활동중점형 34개교 등 총 38개의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교육과정 중점형 3개교, 활동중점형 16개교를 운영했다.

교육과정 중점형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과학·수학 교육과정 및 탐구활동 운영을 통해 과학·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소양 함양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된다. 운영학교로는 양현고, 군산제일고, 이리고, 함열여자고 등이다.

이에 따르면 1학년은 비교과체험활동 등, 2~3학년은 과학중점과정을 운영한다.

학생참여형 과학 수업, 온·오프라인 창의융합 탐구활동, 첨단과학기술 활

용 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활동 중점형은 다양한 과학수업 및 과학탐구, 융합교육, 미래기술기반 프로그램 등 폭넓은 과학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신 과학교육 및 융합교육 관련 기자재 사용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진로 탐색 및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과학중점학교 운영으로 폭넓은 과학·수학 교과 이수 기회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제공해 학생들의 과학탐구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운영기관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4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운영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커머스 입점,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온라인 시장 맞춤형 아이템 검증, 국내외 이커머스 입점,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DT)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코칭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실습 관련 비용으로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50만 원 지원하고, 판매

소상공인의 성공스토리 및 노하우를 담은 특강도 실시한다.

교육생 모집은 4월 한 달간 총 10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온라인(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www.jnu.ac.kr/jstartup) 및 전화(063-220-2843, 319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총괄 프로젝트매니저(PM) 이상우 교수(경영학과)는 "2년 연속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선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다년간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노하우 및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